



남서울 목장 모임

(10월 18일)

Welcome 환영

“가을이 되면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 없다).”

Worship 찬양과 경배

찬송: 200 / 남서울찬양집: 60(주님 말씀하시면), 61

QT 나눔

❖ 한 주간 나의 경건생활을 돌아보며: ✓표로 체크하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❶ 나는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회 할 수 있었다. □
- ❷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찢림이 되어 회개한 것이 있다. □
- ❸ 말씀 묵상을 통해 도전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어 순종하여 행동한 것이 있다. □
- ❹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였다. □
- ❺ 한 주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 □

☞ ♡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 가운데 받아 누린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묵상, 그리고 적용과 나눔

[호세아 4:1-19]을 읽으십시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지식)이 세상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알리라(마7:15).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의 삶속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열매 없음'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가시화(열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는 늘 '관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관계가 곧 삶'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 ❶ 하나님께서 누구와 논쟁(고발)하십니까?(1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십니까?(1절)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2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속에서 맺히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잘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봅시다.
- ❷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고발은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6절) 특별히 어떤 내용이 고발되고 있습니까?(7절, 12-13절) 나는 말씀으로 나를 잘 단장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잘 나누고 있습니까?

Word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얻은 속량”

[골로새서 1:14] 말씀

먼저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죄를 그저 없던 일로 여겨주심으로, 그저 눈감아주심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저 없던 일로 덮으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며 반드시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인정하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실 뿐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14에 나타나 있는 ‘속량’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묵상해봅시다.

- 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인 십자가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죄의 심각성에 대해 자주 잊고 살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죄에 대해 가진 생각은 어떠했고 죄를 어떻게 대하며 살았습니까?
- ②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속량, 즉 값을 치러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까? 한편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과 확신을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와 동일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사랑과 희생을 받아야 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Pray for ~

- 1)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
- 2) 주간기도제목과 목장가족들의 중보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
- 3) 찬양과 기도(주기도문/대표기도/합심기도/조용한 묵상)로 마무리 합시다.

Work & Witness 사역 나눔

- **2015년 신임 제직 추천:** 해당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목장에서 잘 챙겨주세요!
 - 신임 서리집사: 1)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2)타교회에서 집사였던 경우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3)세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4)목장 또는 부서 모임에 충실한 자
 - 무임 장로/안수집사/권사: 상기 신임 서리집사 추천 기준 + 이명증서 제출
 - 신임 제직 훈련: **11/21(토) 오후** 예정
- **사랑의 물품 바자회:** 10/30(금) 오전11시, A/B실, 파랑새공원. 주관: 5부 여전도회